

## [ 성 구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채희근(kyesin1980@gmail.com)  
편집인: 윤성천(scyyun2134@hotmail.com)  
전화: 031-768-1980  
팩스: 0303-0944-2936

2024년 4월 1일 (월)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41호 1

## 제44회 교역자 수양회



제44회 교역자 수양회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2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 오전까지 있었다.

이번 수양회에는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딤후4:15)는 모토 아래 여덟 분의 강사 목사님들(고석남, 지달웅, 채희근, 정양곤, 이창욱, 이용주, 이청수, 석균태목사)이 주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리고 성령님께서로부터 영감 받은 말씀들을 은혜롭게 잘 전해 주셔서 150여명의 교역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하였다.

다른 단체(탈북민을 섬기는 교회)와 함께 수양관을 사용하는 바람에 중강당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불평이 없이 거리가 있는 곳을 왕래하며 예배를 드렸다. 또 좁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데는 불편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는 더 좋은 분위기였으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날씨가 아직도 추웠어도 차박을 하며 기도하 힘쓰는 모습들을 보니 귀감이 되고, 우리 교단이 작지만 함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협력하며 단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고, 주님의 날까지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견지하며 나가는 우리 계신총회가 되길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한다. 아멘! 기사 남성호목사

## 제3회 청년연합 성경특강



제3회 청년연합 성경 특강이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흥교회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도에 제2회 청년연합특강이 있던 후 무려 5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으로 모든 청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강사로는 홍진욱 목사(구약개론), 석진건 목사(종교개혁과 오직 성경), 구왕서 목사(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재호 목사(칼빈주의, 개혁주의), 김은택 목사(개혁주의 예배와 찬양), 정승환 목사(신약개론)가 섬겼다.



청년연합 성경 특강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로써 다른 도움없이 청년들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이에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7:30부터 9:30까지 늦은 시간에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였다.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성경 중

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뿜어져 나온 귀한 시간이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제 4회 청년연합 성경 특강을 기다려본다.

유준광 강도사

## 계약신학연구원 신학생 모집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 성경을 바르고 깊이있게 배우는 곳,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길

| 과정                                                                                                            | 좋은제도                                                                                                                                                                     | 문의처                                                                                                                                                                     | 제출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경연구과정(8학기)</li> <li>신학연구과정(6학기)</li> <li>편목과정(2학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비 무료</li> <li>온라인강의 가능</li> <li>졸업 후 석사(Th.M) 장학금</li> <li>졸업 후 본 교단 목사 안수</li> <li>졸업 후 선교사 파송</li> <li>졸업 후 여전도사 사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 상담<br/>010-3790-0159 (유신승 간사)</li> <li>진로 상담<br/>010-8781-7471 (이용주 위원장)</li> <li>신앙 상담<br/>010-2586-0461 (장백준 원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양식(원서, 추천서, 이력서, 고백서), 최종학력 졸업, 성적 증명서</li> </ul>             |
| 지원자격                                                                                                          |                                                                                                                                                                          |                                                                                                                                                                         | 원서접수 및 면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졸 및 동등학력 이상</li> <li>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li> <li>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li> <li>날짜: 상시모집</li> <li>면접: 대면 및 온라인</li> </ul> |



## 설 교

##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 베드로전서 2:1-3

이기환목사  
창정교회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성화를 이루어서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10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났으나 몸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영은 중생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이 성령과 합작하여 죄 가운데 있는 몸을 점점 건져내는 것이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입니다(롬8:23).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성도는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마5:19),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별거 벗은 몸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15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도록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 첫째,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1).

성도의 영과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 ① 모든 악독: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것을 버려야 함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성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모든 악독을 속에서부터 버려야 성도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 ② 모든 기만(궤휼):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것을 버려야 함.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간사하게 남을 속인다고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속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모든 기만을 버려야 진정한 성도이며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 ③ 외식: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함.

예수님께서서는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3:27). 외식하는 자는 마치 겉에는 회를 칠하여 희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식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또는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유익을 보려는 기만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므로 외식을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외식을 버려야 성도의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 ④ 시기: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함.

시기는 타인이 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며 미워하는 행위가 시기입니다. 곧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시기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잠언 14:30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될 때 시기하지 말고 기뻐해 주고 그 사람을 본받아 자기도 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15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방해하는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영혼과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 ⑤ 모든 비방하는 말: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 내고 거짓말로 남을 비난하며 악평하는 것.

성도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나의 영혼과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문둥병이 들렸습니다(민 12:1-10).

특히 교역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면 자기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에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다른 성도들도 은혜받지 못하게 만들어 교회에 큰 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

어내거나 거짓말로 남을 비난하며 악평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버려야 성도의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납니다.

이상 이것들은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데 지대한 해를 주기 때문에 베드로는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려야 성도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고 영적 성전을 잘 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 둘째, 사모해야 합니다(2).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려면?

## ① 갓난아이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젖을 사모하다는 것은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하루에 몇 번씩 수도 없이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좋아하여 말씀을 읽고, 모든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 ② 순전한 젖(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만으로 영양을 얻어 자라납니다. 엄마의 젖에 맛을 내기 위해 다른 성분을 섞어 갓난 아이에게 주는 것은 갓난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섞은(혼합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영혼과 믿음에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섞여지지 않고 온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받아먹어야 영혼과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 ③ 신령한 젖(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로부터 나오는 젖을 간절하게 좋아하여 흡족하게 먹고 자랍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좋아해서 받아 먹어야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 셋째, 그리해야 합니다(3).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은?

## 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사랑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맛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 ② 하나님의 은혜(선물)를 맛본 것.

에베소서 2:5-8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 ③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곧 말씀을 맛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맛보았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첫번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두번째,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대로, 하나님의 은혜(선물)를 맛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대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는 줄 믿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논 단

구왕서 목사  
광흥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련의 사건들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며,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확정적 증거들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부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인 예수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일과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높아지신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일을 비하라고 하며, 다시 높아지신 일을 승귀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빌 2:6~8에서, 그리스도의 승귀는 빌 2:9~11의 구절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 I.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케노시스(비움)이며 다른 하나는 타페이노시스(비하)이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태로 인성을 취하신 사실을 의미하며, 후자는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시고 수치스럽게 죽기까지 일생을 행동과 고난으로 순종하신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책임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하신 것이다(갈 4:4).

한편, 개혁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를 5단계로 말한다.

## 1.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 한 위인 하나님이며, 이러한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그 본성을 변질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적 본성인 신성에 추가적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으므로,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타락 이래로 연약, 고난, 죽음 아래 매인 인성을 입으신 것은 분명히 비하였다(롬 8:3, 고후 8:9, 빌 2:6~7).

주목할 만한 것은, 빌2:7의 “비워”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비웠다는 견해, 즉 겸허설(kenosis theory)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19세기 중엽의 겸허론자들에 의하면, 로고스가 성육

신 당시 그의 이행적(transitive) 속성 또는 모든 속성들을 박탈당하시고 단순한 잠재성(potentiality)의 상태로 위축되었다가 인성과 연합하면서 신인(神人)적 인격으로 다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로고스는 스스로 참된 인성을 취하기 위해 절대 권능, 거룩, 진리,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본질적 속성은 견지하면서도 전능, 편재, 전지와 같은 신성에 비본질적인 상대적 속성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겸허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추정되는 것은 빌 2:7에 대한 미국 개역성서(ARV)의 번역본으로, ‘emptied Himself’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겸허설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부정하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말 3:6, 약 1:17 등에 따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비우거나 잃지 않았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겸허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즉,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빌 2:7의 “비워”의 의미를 신성을 비웠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되심의 영광(빌 2:6)을 내려놓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 2. 고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전생애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만군의 주이신 예수께서 종이 된 생활이었고, 무죄하신 이가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려야 했던 삶이며, 죄로 저주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영위해야 했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서는 순종의 길이 곧 고난의 길이였으며, 성육신에서 시작된 고난은 그의 생애 끝의 대수난에서 마침내 절정에 도달하였다. 또한 그가 당하신 고난은 육체와 영혼이 모두 죄의 영향을 입어 양쪽 모두에 부과된 것이다(마 26:38, 마 27:26).

## 3. 죽음

죽음은 육체적 죽음 곧 영육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킨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자연적 결과가 사망이지만,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범죄를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음에 굴복하게 된 경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자연적 귀결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사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중보자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는 중보자가 자원하여 인류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즉, 그가 중보자의 역할로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동시에 그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실증하신 것이다(신 21:23, 갈 3:13).

## 4. 장사

인간이 자기가 유래했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죄의 형벌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으며(창 3:19), 매장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장사도 비하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몇몇 구절은 구세주가 무덤에 계신 것도 비하의 한 형태였음을 암시해 준다(시 16:10, 행 2:27, 31, 13:34, 35). 그것은 무덤고 음침하며 부패의 장소였던 음부로 내려가심이었다.

## 5. 음부에 내려가심

사도신경은 주님의 고난, 죽음, 장사, 지냄을 고백한 후 뒤이어 ‘지옥(음부)에 내리우사’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문구는 다른 구절들만큼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신경 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구절은 성경 속에는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신경의 다른 조항들만큼 성경의 직접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전 과정에서 크고도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친히 당하셨음을 의미한다(시 116:3, 삼상 2:6, 사 53:10, 마 26:38).

## II. 그리스도의 승귀

루터파에서는 비하와 승귀 신분의 주체를 로고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제일 먼저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승귀의 신분이 하계(lower world)에 나타났고, 부활과 승천에서 현세(this world)에 드러났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개혁파 신학은 신인인 중보자의 위격을 승귀의 주체로 간주하면서도, 승귀가 일어난 것은 인성이었다고 강조한다. 신성은 비하나 승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귀 역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4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 1.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즉, 부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행 2:31~32, 3:15). 또한 부활은 단순히 그가 다시 사셨고 영육이 재결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신자의 부활에 대한 밀천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전 15:20).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과 칭의를 보장한다. 예수께서는 부활로 사망을 멸망시키셨으며,

그와 연합된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전 15:26).

## 2. 승천

그리스도의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의 전이는 부활에서 시작되어 승천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승천은 중보자의 위격이 그 인성을 좇아 지상에서 하늘로 가시적으로 올라가신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장소 이동에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좀더 진전된 변화도 포함했다. 이제 인성이 천국적 영광의 충만함으로 진입했고, 천상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된 것이다.

## 3.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셨다. 이는 하나님인 예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가리키며, 그가 우주의 권세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막 16:19).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롬 8:34).

## 4. 재림

승귀의 정점은, 인간의 손에 수난 당하신 예수께서 심판주의 자격으로 재림하실 때 도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인데, 생사 간에 인간과 천사들이 그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관한 기록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마 24:30, 31, 25:31, 3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의 표지가 될 것이다.

## III. 결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음부에 내려가심의 단계를 통하여 스스로 낮아지셨으며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을 통하여 다시 높아지셨다. 비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중지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신성이 그에게서 삭감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참 인성이 그에게 첨가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귀는 신인(神人)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그 주체이다. 다만, 승귀가 일어난 것은 인성이었는데, 신성은 비하나 승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며(요 3:16) 그리스도의 승귀는 우리를 위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히 7:25).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 장로회 소식

## 지교회 탐방 및 전도 봉사



장로회에서는 2024년 3월 12일 11시에 지교회탐방 및 전도활동 차 경기도 광주 남부교회(한길주목사시무)를 방문하여 장로회 회원들과 권사님들이 참여하였다.

1부 예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복음전하는일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욱 귀한것이라는 바울사도의 고별설교 말씀으로 강도 하신후에 두번씩이나 장로회의 방문에 감동을 받으며 현실의 어려움속에서도 좌절하지않고 힘을 낼수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장로회장 박천수장로의 후원금 전달과

방문하게된 사유를 설명한후에 2부활동으로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교제하며 남부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섯군데로 전도지역을 나누어서 준비한 전도용떡으로 전도를 하고 한목사님의 기도으로 은혜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참석해주신 장로님들과권사님들.남부교회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살롬!!

기사 박천수 장로

## 제주 예향교회 입당감사예배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에 제주 예향교회가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인 송영철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예배는 김정경 목사(총회 총무, 우신교회)의 기도, 김해준 목사(전남노회 제주분회장)의 성경봉독, 제주 목사 사모 합창단의 찬양 후 총회장 채희근 목사가 시편 84편 5-8절을 본문으로 하여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예향교회를 통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유명길 목사(증경총회장, 상대원교회)의 축사와 이흥철 목사(전남노회장, 수완동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너를 애굽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다 막혀 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제주 예향교회 담임인 송영철 목사는 "입당감사예배에 참석해주신 150명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향교회와 삼다교회가 합병하는데 있어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합병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총회장 채희근 목사님과 문정동부교회 이유창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주예향교회가 제주도에서 진리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사 송영철 목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갑자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총회장 채희근 목사님과 문정동부교회 이유창 목사님, 또 모든 총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든 교회를 통하셔서 급속도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욱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받은 사랑 앞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송영철 목사 올림

## 니카라과 신학교 소식



니카라과 예수사랑선교센터(김성현선교사)가 라틴리폼드신학교(SRL)의 정식 니카라과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2022년 예수사랑선교센터 식당에서 6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던 니카라과의 첫 개혁주의 신학교는 라틴리폼드신학교와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여 신학교와 컨퍼런스를 진행하다가 2024년부터 정식 라틴리폼드신학교의 니카라과 캠퍼스(대표 김성현선교사)가 되어 보다 공신력 있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라틴리폼드신학교의 니카라과 캠퍼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사랑선교센터가 신학교 산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존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되 라틴리폼드신학교에서 공증하는 니카라과 신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예수사랑선교센터는 공간제공과 학생모집 및 영성훈련과 관리, 교수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라틴리폼드신학교는 교수 파견과 학생 학위를 책임지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교사가 홀로 신학교를 운영하는 큰 부담을 줄이면서도 니카라과 학생들에게 미주라틴계 교수들(주로 웨스트민스터 출신)과 학위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협력관계입니다.

현재 니카라과 리폼드신학교에서는

M.DIV과정 6명과 일반 학사과정 20명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며, 온라인까지 합친다면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희 신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라틴리폼드신학교(SRL)는 40여년 전 칼 맥킨타이어의 제자이자 R.C스프로울의 친구인 장로교 Noé박사가 세운 라틴계 신학교로 미국 ARTS(개혁주의신학교연합)에 속한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 1) 니카라과에 바른신학과 성경교리의 씨앗을 잘 심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현재 신학교에서 작은 도서관을 위한 신학서적을 구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4) 사진 내용, 신학교 수업 장면
- 4) 니카라과 캠퍼스에서 선교사와 교수, 신학생들과 함께

기사 김성현 목사

## 계약신학연구원 개강 및 졸업 예배

2024학년도 1학기 개강

2023학년도 졸업(신학과정 제32회, 성경과정 제55회, 편목과정 제1회)



올 해는 신학원의 졸업과 개강 예배를 한 번에 드렸다. 2024년 3월 4일(월) 오후 6시에 명륜교회에서 원장 장백준 목사(초월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남성호 목사(안양평강교회)의 기도에도 이어 설교를 맡은 명예원장 박항우 목사(가락동부교회)는 마태복음 10장 28-33절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에 운영위원장 이용주 목사(송탄북부교회)의 졸업축사와 총회

장 채희근 목사(도봉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금번 졸업식은 특별히 추가된 편목과정의 수료가 있었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편목과정의 수료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단의 교역자들이 채워지길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는 2024년 6월 13일(목) 오후 6시 명륜교회에서 드린다.

기사 유신승 전도사